



뱅킹솔루션 특집을 내며....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학회의 여러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 뱅킹솔루션에 대한 특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정보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금융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기존 영업 틀에서 벗어나 IT환경의 확충을 통해 고객가치중심의 환경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핵심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더 이상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응대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적절히 파악해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서비스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실로 생소하던 데이터웨어하우스, 인터넷 뱅킹, CRM 등등의 용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되었고 실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는 기존 시스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IT 투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금융기관의 성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이러한 수요와 투자에 힘입어 인터넷을 축으로 한 2000년대에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처럼 급격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업계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 막대한 전산 투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은행간 합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기존 시스템 중 어느 한 쪽을 버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은행 고유의 리저시 시스템은 통합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로 메인프레임을 사용하는 은행과 유닉스 프레임을 사용하는 은행은 서로 다른 아키텍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선정은 다른 쪽의 기술인력을 재교육 시켜야만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만큼 IT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학회지 지면을 빌어서 뱅킹솔루션 분야를 한번 돌이켜 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간략하나마 앞으로의 금융전산의 정책이나 방향 기술 개발 추이 등등 또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님들과 기고해주신 분들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회지 편집위원회
특집담당 임 석 준